

# Column

## 시간여행과 글쓰기



### 윤성주

(미국 칼튼대학 역사학과 부교수  
기초교육원 초빙 부교수)

**시간여행이란 이런 것일까?** 초빙 부교수 자격으로 거의 4반세기만에 다시 밟은 지난 9월 관악의 표정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교정을 가로지르는 거리낄 것 없는 웃음과 발랄한 몸짓들은 아직 어색하기만 한데, 시간을 넘어 모교와 내가 하나라는 소중한 느낌을 건네준 것은 학생들의 연극이었다. 며칠 간격으로 연달아 국문학과, 중문학과, 영문학과 학생들의 열띤 연기를 보면서 나는 나이를 잊고 즐거워했다. 제한된 무대 위에서 여러 나라 말로 쏟아낸 몸짓과 말이었지만, 학생들이 내게 깊은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문외한인 내가 연기자들의 발성이나 동선, 무대장치, 조명 따위에 날카로운 눈을 돌릴 여유는 없었지만, 학생들 하나하나의 자신이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험 세계의 내밀한 흐름을 내게 풍부하게 전달해 주려 애쓰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말한다는 행위가 나같이 무딘 사람에게도 어떤 인지적, 심리적 효과를 낼 것인지 무더운 여름 방학 동안의 연습을 통하여 여러 번 곱씹어 보았다는 인상을 내게 주기에 충분했다.

막이 내린 후, 연극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극 준비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삶의 결이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말했다. 연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극이 말솜씨와 대인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사실 나도 연극이 주는 여러 효험을 믿기에 교육 현장에서 종종 극에서 훔쳐 배운 교습 방법을 빌려 쓰고 있다. 특히 대형 강의일수록 촌극, 역할 바꾸기, 마녀사냥, 청문회, 모의재판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 주제에 다가가도록 애쓰고 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때는 '서울의 봄'을 총칼에 짓밟히고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던 긴 겨울 날씨에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던 시기였다. 지식인 사회에서도 공공장(public sphere)은 커녕, 공지성(publicity)조차 없던 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란 '꿈속에서나 불러보는 망향가'였다. 지금 학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자신이 진

정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말하고 글로 쓰는 행위가 목숨을 걸 정도의 용기를 요구하던 시절이었다. 왜 말하는가? 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 말이란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드러난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기우뚱거리는 자신의 몸을 바로잡기 위하여 외부세계를 향하여 개인이 내는 소리울림이라고 본다. 티 없이 완벽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소리는 누구나의 내면에서 정직한 물음으로, 또 대답으로 자연스럽게 솟구쳐 나오게 되어 있다. 누군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정직성을 박탈당한 말은, 거짓된 글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에서 유리되어 덧없는 수사의 나열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난 10월 말, 하버드대학교 은사가 서울대에서 한 강연의 통역을 맡을 기회가 있었다.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미국인 노교수의 말이 내 귀에 햄릿의 대사처럼 쑥쑥 박혔다. 어찌면 말을 그렇게 잘 하나? 녹음기를 가져왔더라면, 훌륭한 영어 교재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나는 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분이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버드대학 학생들의 공로이다.” 다시 말하면, 교수가 학생을 훈련시키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토론 주제의 논점을 명확하게 하고, 교수가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서울대 학생들도 수업 현장에서 이런 교호작용(交互作用)을 통해 교수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진술한 말은 나로 하여금 새삼 내 수업시절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권위주의적, 심지어는 도구주의적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란 나는 미국 대학원 초년생 때 선생님들과 1대1 맞춤 수업을 받으면서, 그들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해석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머리 속에서 빨리 엮어서 ‘정답’을 찾으려 들었다. 나의 선생님들은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야(unlearn)한다고 충고해 주었다. 그들은 학문이란 ‘권위로 높아진 기성 이론과 설명 방식’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면서, 선문답에나 나오직한 다음과 같은 화두(話頭)를 던져주곤 했다: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끝까지 의심하라’, ‘책을 읽을 때 행간에서 눈을 떼지 말라. 식인 호랑이가 그 사이에 숨어 있을 줄 누가 아느냐?’, ‘내 말의 어떤 부분이 너의 머리를 치는가?’ 등등. 심지어는 ‘선학의 어깨를, 때로는 얼굴을 밟고 넘어갈 자세를 가져라’라고 충고하였다. 어찌 감히?! 붓글씨를 처음에 잘못 배우면 나중에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고 했던가?

교육에서 말하기와 글쓰기는 기본이며, 시민사회에서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멀리 그리스까지 갈 것도 없다. 특히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토론회든,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담이든, 불특정 다수 앞에서의 대중 강연이든 말하기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중시하던 우리네 과거 교육에서도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 자신의 의견과 이론을 울곧게 펼치고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예전에는 시회(詩會)나 문사(文社)를 통해, 일제 시대와 민주화 운동기에는 독서회 속에서 말

# Column

하기를 배우고 익혔다.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지양해야 할 말하기의 유형도 있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술수인 전국시대의 유세(遊說)나, 도구주의적 경제론으로 떨어진 송나라의 책론(策論), 세습적 봉당투쟁의 도구가 된 조선시대의 간(諫), 나아가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근본주의적으로 밀어붙이던 청나라의 청의(淸議), 소수가 진리의 독점적 점유자임을 자처하고 비교(秘敎)적으로 강요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억설(臆說)은 경계하고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서울대 학생들도 말하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세련된 말투나 웅변술을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오히려 정확한 표현 방법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장차 꼭 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졸업 후에 일반 시민으로서 각자 전문분야에서 다양하게 부딪힐 현장의 요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앞으로 있을 협상, 상담, 갈등 해결의 장에서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배움의 자세이다. 앞서 연극 이야기를 했지만, 라디오, 텔레비전을 넘어, 다매체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통신, 교통 등 기술 발전과 더불어, 말하기의 무대와 상대 또한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아직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두려움의 일반적 원인은 말하기는 글쓰기와 달리, 대개는 원고가 없이 하기 때문이다. 말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의외로 많다. 수줍거나 어눌한 경우, 또 대중기피증도 있다. 자신의 세련되지 못한 말투에 신경을 쓰느라 말을 삼가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평생 사투리만 쓰며 살아 온 사람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경상남도 시골의 조그만 학교에서 서울로 전학, 처음 맞는 국어 시간에 눈치 없이 책을 읽겠다고 나섰다. 다른 아이들의 귀에선 ‘곡조’ 때문에 놀림 받던 일은 지금도 문득 생각이 난다. 지금도 미국에서 회의를 할 때면, 악센트 때문에 안 봐도 될 손해를 볼 때가 많다. 입장이 같은 동료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내 영어가 논적(論敵)의 귀에 닿으면 갑자기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죽지 않고 말한다. 미국사람들 영어도 어차피 영국 사람들에게는 ‘사투리’ 아닌가? 뱃심 좋게 나가다 보면, 반드시 내 말에 동의하면서 구원타를 날리는 좋은 미국 친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보다 깊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듯하다. 결론 (또는 정답)이 이미 있다고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 나이나 카리스마와 같은 비이성적인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해당 주제의 권위자(즉, 교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려 든다. 이런 학습환경은 ‘교수님’이 오랜 연구를 통해 이미 정답이 무엇인지 내면화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그것을 겸손하게 배우고 익혀서 ‘자기화’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낳는다. 질문도 잘 안나온다. 기껏해야 사실관계 확인 또는 보충 자료 제시 정도이다. 토론자로 하여금, 주제에 대하여 더 생각하게끔 하는 질문을 잘 던지지 못한다. 교수의 주장을 자신의 입장을 세워 논박할 엄두는 더더욱 못 낸다. 그러나, 나는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의 지식이 짧더라도 아는 범위 안에서 꼼꼼하게 입론을 세워 끝까지 나와 싸워준 학생에게 최상의 점수를 준다. 내 교육의 목적이 국가권력이 주입하려는 이데올로기나 사회의 통념에서 독립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도덕적 뿌리에 물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학문(學問)은 글자 그대로 끊임없는 질문이다. 잘 된 논문을 읽어 보라.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다. 질문할 것이 없는 문제를 왜 천착하는가?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과제물을 읽을 때도,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정직한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입장을 가지고, 변호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논거를 준비하고 논적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동의해야(agree to disagree)한다.

열린 연극(소통극)에서는 청중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내 수업은 모두 말하기 수업(speaking across the curriculum)이다. 앞서 말한 대로, 대형 강의조차 더 이상 '일인극'이 아니다. 쌍방향, 다방향, 개방형 수업을 하려면, 수업 참가자들의 공명(共鳴)을 위해 학습범위(coverage)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진정한 관심이 생기면 필요한 데이터는 스스로 찾게 마련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 중심으로 생각하자. 석학들의 책을 읽어 보라. 한 우물만 파지 않는가! 우리에게서 배운다는 행위는 더 이상 권위자가 이미 정립된 백과전서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후학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서서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 끊임없는 과정에서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 교육을 통해 말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극이나, 방송학, 언어학, 심리학의 전공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말하기의 기술적, 기호적, 이론적 측면을 파헤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를 전공해야 할 것까지는 없다. 어떤 학문의 갈래든 선학의 진지한 모색 가운데는 의미 있는 질문하기와 말하기가 스며있다. 훈련된 말하기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기본 소양이다. 제대로 된 말하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의 다수결 원리나, 이기적 동기의 총합은 '보이지 않는 손'의 마력으로 공론(公論)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넘어 진정한 합의를 도출할 바탕이 된다. 합의를 할 수 없다면, 다양한 의견이 같은 시민권을 갖고 공존하는 현상도 넉넉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내면적 민주화를 요청하고 있다. 대학 사회에서 배워야 할 말하기는 단순한 토론과 설득의 기술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중지를 모아보는 태도, 역지사지를 수반한 인간관계 개선 훈련, 나아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심지어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과 더불어 사는 삶을 준비하는 너그러운 태도까지 포함한다. 민주주의는 시끄럽다고 했던가?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가 꼭 소란스러울 필요는 없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늘 불협화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름다운 화음도 낼 수 있음을 명심하자. 권위주의를 넘어서 민주 내면화로 가는 2006년 초겨울 관악의 길목에서 서울대 동학들의 성공적인 말하기 학습 경험을 기대한다.